

■ (언론 동향) 2022.1.7. “농민신문” 보도

○ 중국, 비료 원료 수출 중단...일본, 봄농사 차질 '직격탄'

- 인산암모늄 90%요소 37% 중국산 비중 높아 타격 우려

일본에서 중국의 원자재 수출 중단으로 봄비료(춘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1년 10월 중순 이후 무기질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입이 중지돼 수급에 비상 등이 커졌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인산암모늄 연간 수입량은 약 50만t으로 이 가운데 90%가 중국산이다.

요소도 수급이 원활치 않다. 일본의 연간 요소 수입량은 약 37만t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중국산 비중도 37%에 달해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타격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 비료 제조사와 무역업체들은 “중국에서 쌀·보리에 비해 비료 소요량이 많은 옥수수 증산이 추진되고 있고, 국제 곡물가격도 상승 추세”라며 “중국이 자국의 비료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비료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도 “중국 정부가 2021년 10월15일부터 품질 강화를 이유로 수출용 비료에 대한 성분검사를 강화한 것이 일본으로의 수출이 중단된 이유”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한 대형 비료회사 임원은 <일본농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기질비료 원료를 구한다 해도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은 값을 부담해야 하는 등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초유의 사태”라면서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전체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일본농협(JA)전농과 무역회사들은 인산암모늄 등 무기질비료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중국 이외의 국가를 찾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인 데다 국제시장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업계에서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상태”라며 “농가에서는 토양 분석을 통해 비료 투입량을 줄이고 퇴비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김다정 기자 >